

#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0년 1월 조사 -

2020년 2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데이터솔루션기획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 생산활동의 정체에 기록적인 난동(暖冬)이 더해져

~ 국내경기는 4개월 연속으로 악화, 신종 코로나의 영향도 우려 ~

(조사대상 2만 3,665사, 유효회답 1만 405사, 회답율 44.0%,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 포인트

- 2020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1.9로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재고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록적인 난동(暖冬)도 더해져 후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해외동향이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되어 완만한 후퇴가 예상된다.
- 『건설』 『제조』 『운수·창고』 등 10개 업계 중 5개 업계가 악화, 『서비스』 등 5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난동(暖冬)의 영향이 폭넓은 업종의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제조』는 9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토호쿠』 『호쿠리쿠』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 『미나미칸토』와 『큐슈』 2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난동(暖冬)경향으로 인하여 북일본을 중심으로 저조한 계절수요가 하락 요인이 되었다. 또한 『토카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설비가동율의 저하가 눈에 띄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함께 악화되었다.

### < 2020년 1월의 동향 : 후퇴국면 >

2020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1.9로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1월의 국내경기는 기록적인 난동(暖冬)으로 계절수요 및 농업의 침체가 영향을 미친 한편, 해외경제의 감속에 따른 제조업의 침체가 관련 업종으로 파급되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춘절시기에 세계적으로 확대, 료칸·호텔 및 수출·생산 관련 등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생산·출하량 DI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활동의 정체가 보이는 가운데, 설비가동율의 저하와 함께 재고조정의 움직임이 제조업 및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경유 등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코스트 부담의 증가도 계속되었다. 한편 미중(美中) 무역협약에 의한 제1단계 합의가 플러스 요인이 된 외에, 5G(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로의 움직임 등도 호재가 되었다.

국내경기는 재고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록적인 난동(暖冬)도 더해져 후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후퇴 계속돼 >

향후는 해외경제의 동향이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당분간 약한 움직임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의 확대 및 미중(美中) 무역마찰, 영국의 EU 이탈 후의 전개, 중동지역정세 등이 우려 요소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연료가격의 상승 및 인력부족의 심각화 등이 기업경영의 부담이 되는 한편, 중국 방일객의 일시적인 감소가 계속될 것도 우려된다. 또한 소비자 포인트 환원사업 종료 후의 소비동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적인 실리콘 사이클의 호전 및 생력화 수요, 도쿄올림픽, 보정예산 실행 등은 호재가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해외동향이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되어 완만한 후퇴가 예상된다.



※경기 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